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청소년들을 응원합니다”

하림, 광주교·광주동신여고 찾아 '하림 매실숙성 토종닭 순살 찜닭' 무료 시식회
하림 푸드트럭, 올해로 3년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나눔실천학교 캠페인' 참여

종합식품기업 ㈜하림의 찾아가는 무료시식회 하림 푸드트럭이 지난 27일 광주광역시 광주고등학교에 이어 28일 광주동신여자고등학교를 찾아 '하림 매실숙성 토종닭 순살 찜닭'을 무료로 제공했다.

이번 무료시식회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에서 진행한 '2019 나눔실천학교 캠페인'의 일환으로, 하림은 올해로 3년째 동참해 나눔행복의 가치를 더했다. 나눔실천학교는 청소년들이 소모적인 스펙 경쟁에서 벗어나 나눔과 배려를 경험해 행복한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청소년 자치역량 강화 및 나눔 문화 확산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무연고 아동 지원을 주제로 광주지역 고등학생들이 다양한 캠페인을 펼친 가운데, 그 중 우수학교로 선정된 광주고등학교와 광주동신여자고등학교를 하림 푸드트럭이 각각 찾아 학생들을 응원하고 격려했다.

하림 푸드트럭은 27일 첫 번째 무료시식회를 진행한 광주고등학교에 이어 오늘 광주동신여자고등학교를 찾아 전교생 대상으로 '하림 매실숙성 토종닭 순살 찜닭'을 현장에서 직접 조리해 제공할 예정이다. '하림 매실숙성 토종닭 순살 찜닭'은 엄선한 국내산 토종닭을 건강에 좋은 매실 농축액으로 숙성시켜 부드러운 육질과 감칠맛을 극대화했다. 특히, 달콤하고 짭짤한 하림 특제 찜닭 소스에 버무린 양념으로 학생은 물론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할 뿐 더러 프라이팬에 10분간 조리하면 가정과 야외에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다.



㈜하림의 찾아가는 무료시식회 하림 푸드트럭이 지난 27일 광주광역시 광주고등학교를 찾아 '하림 매실숙성 토종닭 순살 찜닭'을 무료로 제공했다.

하림 푸드트럭 무료시식회 현장에서는 학생들에게 즐거움을 더해줄 경품 뽑기 이벤트도 마련했다. 개인 SNS 채널에 하림 푸드트럭 현장 사진과 지정된 해시태그를 함께 업로드 시 추첨을 통해 하림 선물세트를 비롯해 다양한 경품을 증정한다.

하림 마케팅팀 관계자는 “하림 푸드트럭이 나눔

과 배려를 실천하는 청소년들을 응원하고 지역사회를 돕는 일에 3년째 동참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어제에 이어 오늘도 신선한 닭고기 요리를 정성스럽게 만들어 학생들에게 대접하고, 앞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에 공헌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남원경찰, 어린이 보행사고 ZERO 합동 캠페인 실시

남원경찰서(서장 함현배)는 28일, 개학을 맞은 교통초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육지원청, 시청 교통과,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 등 협력단체와 교통안전에 관한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안전법규를 준수하고 안전한 등·하굣길을 만들기 위해 피케팅 활동을 펼치고, 미리 제작한 전단지 및 홍보용 포스터·포스터 활용품, 물티슈 등을 배부해 캠페인 효과를 높였다.

함, 박노근 경비교통과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은 항상 속도를 30km/h이하로 줄여야 한다”며, 운전자들에게 등·하교시간대 어린이 보호구역 운행에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소방특별점검

남원소방서(서장 조용주)는 지난달 27일 새벽 전남 광주시의 클럽 붕괴사고와 관련해 9월 5일까지 관내 지하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 23개소의 다중이용업소 소방특별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점검에는 화재안전특별조사반 3개반을 투입해 ▲영업장 내부구조 무단변경 및 불법증축 구조물설치 여부 ▲영업장 안전시설 등 소방시설 설치·유지·관리 적정여부 ▲방열대상 물품의 방열 성능기준 충족여부 ▲비상구, 피난 시설·방화구획·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적정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화재안전특별조사반 전기점 소방관은 “다중이용업소를 찾는 시민들의 안전사고예방과 인명사고 제로화를 위해 이번 점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정읍시, 지역경찰 현장 초동대응 강화 집체교육 실시

정읍경찰서(서장 신일섭)는 지난 27일 경찰서 회의실에서 지구대장·파출소장, 치안센터장, 순찰팀장 등 중간관리자 30여명을 대상으로 사전현장 초동대응 강화를 위한 집체교육을 실시했다.

최근 타도에서 발생한 ‘도로 위 보복폭행’ 112신고접수 과정에서 자기관할이 아니라며 인접서에 신고를 안내하여 재신고하게 하는 불편을 초래한 사실이 방송에 그대로 보도되는 등 인일한 경찰대처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날 교육에서는 신고접수 시 관할 불문 대응절차, 가장폭력·성범죄 등 여성 대상범죄에 대한 신고처리 유의사항 등 지역경찰 업무 매뉴얼에 의한 초동대응 요령과 사전현장에서 가·피해자 분리 등 피해자 보호 등을 강조하고, 언론보도된 중요 사건사고 사례를 통한 토론회 교육도 병행하는 등 2시간여의 교육으로 사전현장에서 초동대응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신일섭 서장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대민접점 지역경찰의 초동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지속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실시로 시민안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망성면, 한가위 맞이 공동묘지 무연분묘 예초작업 실시

망성면은 추석 명절을 맞아 관내 공동묘지 8개소(6만5,196㎡)의 진입로와 무연분묘에 대해 지난 28일부터 예초작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망성면 공동묘지에는 650여기의 무연분묘가 위치해 있어 쾌적한 주변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이번 예초작업은 공동묘지 진입로와 무연분묘의 잡풀을 제거하고 주변 환경정비도 병행해 실시하고 있다. /익산=장양원 기자



진안중 레슬링부, 전국대회서 메달 획득

28일 전북체육회(회장 송하진)에 따르면 최근 전남 무안에서 열린 '제47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학생레슬링 선수권대회'에서 진안중 레슬링부가 금메달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진영준(2년)은 자유형(-39KG급)과 그레코로만형(-39KG급)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해 대회 유일 2관왕을 차지했다.

동갑내기인 김민수(2년)도 자유형(-45KG급)과 그레코로만형(-45KG급)에 출전해 각각 2위와 3위를 기록했다.

또 자유형과 그레코로만형 단체전에서도 선전을 이어가며 종합 3위를 달성했다. 이같은 성적은 진안중 레슬링부가 지난 1985년 창단한 이후 역대 최고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낸 모든 선수들이 2학년으로 내년 전국소년체육대회의 전망도 밝게 했다. /장승성 기자

장수읍 반암파출소 생활안전협의회 합동 순찰 범죄예방 홍보

장수경찰서(서장 박정원) 반암파출소(소장 김규주)은 주민만족 정성치안활동으로 주민으로 구성된 경찰 협력단체 생활안전협의회 등을 중심으로 주민과 손잡고 범죄예방 활동 및 홍보를 전개하고 있다.

반암파출소에서는 추석절 범죄 분위기를 사전 제압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27일 야간에 생활안전협의회 및 자율방범대와 합동으로 반암초등학교 불빛공원 복귀회관 등 범죄우려지역 점검 및 교통사고예방 홍보를 위해 합동순찰을 실시했다.

또한 버스정류장 주변에서 배회하는 학생들 상대 빨리 귀가 할 수 있도록 선도했으며 삼가등 방문 농산물 도난예방 전단을 배포 가을철 농산물 도난예방 홍보했다.

한편 박정원 장수경찰서장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범죄예방활동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체감치안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